



“우리 수녀원에 들어오면 할 일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 주보성인 빈첸시오께서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1986년 12월, 다음 해 입회를 앞두고 본원을 방문한 저는 불문과 4학년이었고 당시 지부장이셨던 문말린수녀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윙크와 함께 저에게 던지셨던 첫 말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2년 동안 불어를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수녀님의 유모가 섞인 이 환영의 말씀은 늘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구 전례책임을 맡고 있는 채현기수녀입니다.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청년기에 본당 반주자로, 생활성가찬양그룹 연주자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저의 음악성장배경덕분에 저는 1987년 입회 후 바로 Jean Malloy (민지인)수녀님의 손에 이끌려 오르간위에 앉게 되었고, 양성기 동안 수녀님의 손끝을 따라 성가반주를 하며 우리 수도회의 다양한 아름다운 성가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 마음으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찬미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느님의 계획은 저의 32년 수도생활동안 다른 사도직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수도회전례사도직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처음 전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organ skill 과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던 중 유학의 기회가 주어져 2000년 1월 SetonHill 대학 Sacred



Music 과에 편입하였습니다. 2년 반 동안 Ed. Highberger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 Organ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 교수법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였고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분들과의 만남은 2003년 귀국하여 본원전례책임자로, 이후 소명여자중학교에서 약 10년 동안 음악교사로 살면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스스로 성장시켜갈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것이 저의 소명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다시 관구 전례책임자로서 파견을 받아서 수도회의 행사 및 전례를 준비하고, 수녀님들의 성가지도, 오르간, 기타, 우쿨렐레, 리코더 등 악기지도 및 초기양성자들의 전례, 창조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강진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에 출근하여 베트남, 중국학생을 포함한 20명 1,2학년의 음악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1960년 미국에서 오신 네 분 수녀님들이 첫 발을 내딛은 곳이기에 오늘 다시 음악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마더씨튼의 사랑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늘 가슴 벅차고 저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가져다줍니다. 가장 행복한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전례로 매일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저의 삶이 참 복되고 감사합니다.





“There must be a lot of work to do when you enter the community. St. Vincent, the patron saint for our congregation is French.” These were the first words that Sister Marlene, regional superior, said to me. Before I entered the community, she welcomed and winked at me when I visited the provincial house in December 1986. At that time, I was a senior stud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in the university. Even though I never spoke French for 32 years of my religious life, I always remember her greetings with a sense of humor.

Hello! I am Sister Chae, Hyun Kee, Director of liturgy of the Korean Province. I learned to play the piano when I was 7 years old. Later I played the organ in my parish and was an active member of a Christian worship band

for young adults. After entering the community in 1987, Sister Jean Malloy encouraged me to play the organ because of my music background. During the formation period, I learned various beautiful hymns familiar to our community under her guidance. At the same time I naturally experienced the joy and abundance of praise when I sang songs and played the organ with all my heart. God planned that I would work as a director of liturgy longer than other ministries.



While I ministered for the liturgy, I found that I needed to learn professional organ skills and music education. The community gave me an opportunity to study Sacred Music at Seton Hill University in January 2000. I studied the organ, different genres of music and teaching methods from many professors including Edward Highberger. It was a great gift and a chance to grow. After returning to Korea in 2003, I worked as a director of liturgy in the provincial house and then as a music teacher in Somyong Girls’ Middle School for 10 years. Thanks to my professors at SHU, I could remember and live out a calling to accompany people that I teach and allow them to find their unique beauty and grow their musical potential.



Since 2019, as Director of Liturgy of the Korean province I have prepared congregational events and liturgy. I direct the Sister’s choir and teach organ, guitar, ukulele and recorder. I conduct classes on liturgy and creativity for young sisters. Every Thursday

I go to St. Joseph’s Intercultural High School in Gangjin to have music classes for 20 students of 1st and 2nd grades, including Vietnamese and Chinese students. Gangjin is the place where the four sisters from the U.S took their first steps in 1960. My classes in St. Joseph’s are exciting and give me new energy because I can share Mother Seton’s love with my students as a teacher. I thank God and the community for the opportunity to prepare beautiful liturgies, like the wise women who saved their oil and were prepared when Jesus came. This is one of my happiest joys.

